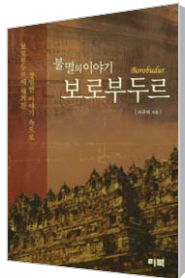




불서읽기 캠페인

인도네시아 역사문화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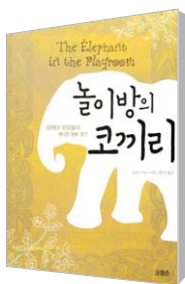
불멸의 이야기 보로부두르
서규석 지음 | 리복 펴냄 | 1만9000원

보로부두르사원의 종교적, 역사적, 건축학적 이해를 통해 동남아시아 불교문명 탐구서이자 인도네시아 역사문화 가이드북이다.

보로부두르는 대승불교의 사상적 기반과 밀교적 건축양식을 가진 대승불교 기념물로 그 자체가 불교경전이다. 동남아 고대 문명에 해박한 작가는 1460개의 부조에 새겨진 불교경전과 붓다의 전생이야기를 포함한 불교설화를 살아 숨쉬게 했다. 총4부로 구성된 가운데 제3부는 <본생경> <화엄경> 등 불교경전에 주목해 보로부두르의 각 회랑을 분석했다. 부조들이 담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며 그 묘미를 풍부하게 되살려 준다.

화엄경 등 대승불교 경전에 기반한 이야기들은 문명적 교감과 함께 불교경전의 순수한 이해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상연 기자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선물



놀이방 코끼리 : 장애아 부모들의 색다른 행복 찾기
데니스브로디 지음 | 흥은미 옮김
크림슨 펴냄 | 1만4000원

“육체적 장애는 극복할 수 있지만 탐·진·치에 물든 ‘정신적 장애’는 이겨내기 어렵다.” 부처는 육체적인 장애보다 정신적 장애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놀이방 코끼리>는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위안이자 선물이다. 저자는 수업시간이나 놀이 시간에 벌어지는 일, 아이의 짜증 등에 다른 부모들이 대처하는 방법을 듣는 것이 장애아를 둔 부모에게는 최고의 보약이라고 말한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음으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실제적인 도움의 내용을 전한다.

이 책은 오히려 일반인들에게 더욱 필요한 책이다. 일반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를 바라보는 참다운 시각을 알려주고 육체적 장애보다 무명에 가린 정신적 장애가 더욱 무서운 장애임을 깨닫게 해준다.

이상연 기자

‘전각’ 응용으로 다양한 禪 세계 안내



선의 관문: 무문관(無門關)
무문혜개 원지김백호 역지심거 펴냄 | 2만3000원



무자인(无字印)
불성이 없는 개가 있고 불성이 없는 사람이 있다. 불성이 없는 사람의 형상은 어떤 모습인가? 불성이 없기 때문에 무자(无字)를 통해 새겼더니 미륵부처의 형상이 된 것은 어떤 까닭인가? -<무심관> 가운데-

“파도가 있다 없다 싸우지 말라. 일수(一水)를 벗어나지 못하니.”

<무문관(無門關·심거 펴냄)>은 조주 화상에게 개의 불성을 묻자 “없다”고 답한 ‘조주의 개(趙州狗子)’ 선문답에 저자의 ‘백호평어’를 더하고 송을 붙여 강설한다. 1228년 무문 혜개 스님의 선문을 바탕으로 780년의 시간을 거슬러 무구 김백호(50·사진) 선생에 의해 현대적으로 해석된 화두집이다. 선문의 공간 48칙을 담은 <무문관>은 고양시 단일문화원 원장으로 활동 중인 저자가 금요 명상반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참선수행을 지도하며 선(禪)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도(道)란 어떠한 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갈 수 있지만 화두의 관문을 통과해야 깨달을 수 있지요. 무문관의 관(關)은 관문의 출입말입니다. 중요한 길목은 문을 통과해야만 지날 수 있듯 화두도 이와 비슷합니다.”

“무엇이란 그 무엇(2002)> <천부경(2007)>에 이은 세 번째 저술서 <무문관>은 ‘자신이 바로 주인공’이라는 일관된 주제로 펼쳐진다. 그 어느 때보다 물질주의 중심인 이 시대에 행령을 맞추는 역할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밝히는 것’이라는 결론이다.

“경쟁구조를 해결하는 방법론에 있어 철학적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대립을 해소하고 사회에 내재된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데 음악철학에 기반 한 <천부경> 81자는 정선, 물질, 존재생명의 조화를 모색하지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무문관>은 원호 스님이 시도했으나 사회에 적용되지 못한 <심문화쟁론>에 집묵해 시대의 갈등을 해소하고 실천 수행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한다.

“결국 문제는 아담에서 옵니다. 마음이 어두운 세상에서 자아의 본래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역량은 발휘될 수 없지요. 쉬운 선(禪)을 추구하는 요즘이지만 마음을 밝히는 핵심이 결여된다면 곁길기에 불과합니다. <무문관>은 자연스럽게 참 자아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도록 돕습니다.”

저자는 저술 과정에 있어 그 시대에 절실한 언어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800여년의 시간차를 극복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선(禪)도 모르고 화두도 낯선 이를 위해 ‘전각’으로 응용해 다양한 선(禪)의 세계로 안내한 섬세함이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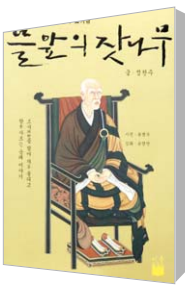
“단일문화원은 다양한 영역에서 율화를 추구하는 실용주의를 표방합니다. 종교의 율타리를 허물고 좋은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종교인들의 공동체로서 ‘마음이 밝으면 참 부처’라는 진실을 <무문관>을 통해 공감해 보십시오.”

저자는 11월 22일 일산 선도원(禪道院) 개원을 앞두고 있다. 박제된 불교를 떠나 삶 속에 살아있는 부처로 깨어나는데 앞장서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참나를 찾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 진정한 행복을 현실로 구현하는 날을 기대해 본다.

후원: [선도원] 국민은행 293201-04-093726, (031)918-8835

기연속 기자 omflower@buddhapia.com

어디서든 자신이 주인이 되라



중국 10대 선사 禪기행 : 뜰 앞의 잣나무
정찬주 글·윤명숙 사진·송영방 삽화
미들하우스 펴냄 | 1만5000원

구도(求道)란 무엇인가?
원호 스님은 <대승기신론소>에서 거두어 취해야 할 도(取)之道)로서 궁극의 깨달음을

정의했다. 진리를 구하는 자는 결국 진리를 찾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야 하는 것이다.

저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대 자신이 주인이 되라. 어디에 있는 그대 자신이 참이고 진리이다”라고 설한 임제 선사 어록을 좇아 현전일념(現前一念)을 화두로 중국 10대 선사들의 주석체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 뜰 앞의 잣나무 한 그루를 마음에 심었다.

“제 구도 여정에 공감하고 왜 이 사람이 순례하는가 물음을 띄운다면 그것이 이 책의 저술 동기다”라고 말하며 “내가 있는 곳이 달마동이라는 진실을 깨우쳤을 때 나는 이조사가 되고 삼조사가 된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왜 현대인은 잃어버린 자기를 찾지 않는가? <뜰 앞의 잣나무>는 중국 10대 선사의 핵심사상을 조망하면서 선문답의 공간으로 정착된 선자의 전통을 밝혀 자성의 본체를 찾는다. 기연속 기자

‘해야하는 마음’ 보다 ‘벗어나는 것’에 초점



지구를 구하는 경제학 : 불교로부터의 제언
이노우에 신이치 지음 | 박경준 옮김 | 우리출판사 펴냄 | 1만 원

“이대로 가다면 인류는 없다.”

불교국가 미얀마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주류 경제학의 부적절성에 항거했던 경제학자 E. F. 슈마허(Ernst Friedrich Schumacher, 1911~1977). <지구를 구하는 경제학>은 슈마허의 저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거론한 ‘불교경제학’ 모델에 지속가능한 지구의 밝은 미래를 건다.

“서구 팽창주의 배경이 포기되고 그 자리에 불교 가르침이 들어선다면 어떠한 경제 법칙이 적용될 것인가?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개념의 정의가 어떤 모습을 띄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으로 불교경제학의 초석을 다진다.

슈마허로부터 영감을 받은 저자가 논의한 불교경제학의 세 가지 슬로건은 ‘자리아타(自利利他)가 원만한 경제학’ ‘평화의 경제학’ ‘지구를 구하는 경제학’이다. 부처님은 지나

자비를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덕목이다.

역자 박경준(동국대 불교학) 교수는 후기를 통해 “지구를 멸망시키는 현 경제학의 대안 경제학으로서 불교경제학은 명실상부한 지구를 구하는 평화의 경제학”이라고 단언한다. “모든 사람이 불자라는 자각으로부터 불교경제학은 시작된다”는 견해다. 자리아타의 일어(一如)에 의한 여러의 관용은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 혹은 ‘해야만 하는 마음’보다도 ‘하고 싶은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불교는 현재 현실의 종교다. 모든 사업은 불법행(佛法行)이다. <지구를 구하는 경제학>은 자본주의 경제학사를 근거로 한결같은 평상심의 상도덕(商道德)을 행하는 방침에 신중히 접근한다. 이로써 자연히 보리심을 성취하고 무애자재한 행복에 도달하도록 해 불교적 자유를 체현하는 지표를 제시한다. 기연속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성철스님 화두참선법	원택	김영사
3	인과경	현담	선
4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5	아벨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6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7	아름다운 인생은 열람에 남는다	돌	원철
8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9	그것만 내려 놓으라	지명	조계종출판사
10	젤을 가져게 잘하는 법	청건	붓다의 마음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달다

조계종 77조 전강 대선사님 법어집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사의 거목인 전강 대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쳐난 삶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선사님께서 전강 대선사님의 법거량과 법문, 일화를 재조명하여 보였습니다. 전강 대선사님과 대원 선사님의 특별한 인연과 고수명창감이 어우러진 두 분의 법거량도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섬광과 같은 지혜로 수놓은, 최상승법의 자취없는 문양과 향 없는 향기에 흠뻑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달다>는 선(禪) 수행자들에게 10년 가문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법문}전등록 전5권 / ^{법문}무문관 / ^{법문}벽암록 / ^{법문}천부경 / ^{법문}금강경
^{법문}산심명 / ^{법문}중도가 / ^{법문}반야심경 / ^{법문}선문염송 전30권 중 11권
^{법문}환단고기 전5권 / ^{법문}법흥선사 심명 / ^{법문}선거가감 / ^{법문}법성계
 주머니 속의 심경 / 영원한현실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복산에 첫눈이 내린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세월을복책세상음복삼아 / 달다

법회 안내

매일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거가감 법문 02-3494-0122
 매일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일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일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